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로 밥먹엉 살아보게 마씸 (20·끝)

제자리 사업 탈피 예산 투입 의지 보여야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올해부터 균특이양 사업 투입 규모 道 의지에 달려

2018년 3.2% 문화예산 확보 2020년 2.83%로 비중 감소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예산이다. 제주도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3%를 넘은 건 불과 2년 전인 2018년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벌이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앞으론 재량권을 가진 제주도가 이 분야에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전년 국비 매칭 규모 27억 동일 편성**=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서 2020년 지방 이양된 예산은 균특회계사업을 중심으로 2866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국비 매칭으로 추진해오던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도 그중 하나다.

제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 우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기초예술 활성화와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취지로 운영된다. 2019년엔 전문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최초예술인 지원사업, 장애인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 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창작공간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안문화공간 지원사업 등이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으로 시행됐다. 올해도 제주문예재단은 기초예술창작활동 지원 등 10개 분야 300건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제주도는 균특이양 첫해인 올해 전년도(국비 7억8900만원, 도비 19억3700만원)와 같은 27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예산 편성 시 후순위 밀릴 가능성 높아**=문화예술 분야는 의무지출 사업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에 비해 지자체 예산 편성 시 후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제주도가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긴급 재정 마련을 이유로 문화예술 예산 삭감을 추진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2018년 제주도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3.22%였지만 2019년에는 그 비중이 3.1%로 소폭 감소했다. 2020년에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총 1649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0.48% 늘어났으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3% 미만인 2.83%로 나타났다. 제주문예재단 사업 예산은 2017년 약 109억원에서 2019년 156억원 규모로 증가했으나 2020년 들어선 146억원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기반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하는 일과 더불어 이에 필요한 예산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서 제주도와 제주문예재단이 언제까지 수세적 사업만 펼칠 것인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 등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학, 전시·특강·탐방으로 더 가깝게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대회 이달 12~16일엔 제주학주간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가 주관하는 제4회 제주학대회가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을 주제로 이달 12~16일 열린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이번에 대회 기간을 '제주학 주간'으로 정해 제주학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늘렸다.

이달 12~16일 가인갤러리(제주시 금월길 15-2)에서는 제주학 아카이브전 '기억의 재생 지금, 이 자리'가 펼쳐진다. 전시 기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자료집 등을 배부하는 '책 나눔'도 있다. 첫날 오후 1시부터는 예닮의 특별 공연 등 개막 행사를 준비했다.

13일 오전 10시에는 이현정 박사와 함께 구좌읍 일대 '산육(産育) 신앙' 신당을 돌아본다.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가 강의하는 '제주시 원도심 들여다보기-골목길의 삶과 풍경' 탐방이 이어진다. 16일 오후 2시에는 가인갤러리에서 강영봉 제주대 명예교수 초청 '제주어를 부탁해!' 강연이 예정됐다. 탐방과 강연 프로그램은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최대 20명)을 받고 있다.

제주학 학술대회는 15일 오후 1~6시 난타 호텔에서 개최된다. '역사 속 제주 정체성', '사상사 속 제주 정체성', '문학 속 제주 정체성', '개발과 제주 정체성', '이주·다문화와 제주 정체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잇따른다. 참가 인원은 50명 이내로 제한했다.

주요 행사는 제주학연구센터 유튜브와 페이스북(제주바투리)으로 중계된다. 문의 726-5623. 진선희기자

홍지안 개인전… 심안으로 그린 풍경

홍지안 작가(본명 홍향미)가 육안으로 만난 풍경을 '심안(心眼)'으로 해석한 그림들로 일곱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제주 풍경-회상(Recollection)'이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눈으로 들어온 풍경이 마음 속 어딘가에 감각의 편린으로 남는 여정을 단순화한 구도와 색채로 표현했다. 우연한 멜로디와 함께 되살아나 또 하나의 풍경을 이룬다. 이달 15일까지 갤러리카페 거인의 정원. 진선희기자

홍지안의 '케렌 앤의 '낫 고잉 애니웨어(Not Going Anywhere)'를 듣다'.

홍기표 박사와 함께하는 **한라일보** 인문역사 강의

제주 전역 69명 148기 목민관 비석 산재

(7) 조선 목민관비와 정려비

1인 2기 이상이 전체의 69% 심연 목사의 비 가장 오래돼 금령 영향 19세기 비석 다수

충·효·열 정려비는 총 71기 절반이 제주시 북서부 소재

가장 많은 목민관 비석이 모여있는 화북비석거리.

현재 제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 목민관 비석은 총 69명, 148기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 목민관 비석의 직위별 인원과 수량은 목사 36명(106기), 판관 9명(14기), 현감 9명(13기), 군수 5명(5기), 만호 5명(6기), 어사 2명(3기), 기타 3명(3기)이다.

148기의 목민관 비석 중 1인이 2기 이상 보유한 인물은 23명으로 총 102기가 있다. 인물로는 총 69명 중 23명으로 전체의 33%에 해당하지만 비석 총수로는 148기 중 102기로 1인 2기 이상의 비석이 전체의 69%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 목민관에 대해 제주 곳곳에서 중복된 비석이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해당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설립되었겠지만, 제주 전역을 휩쓴 흉년, 가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해 제주 전역에서 아사자 등이 발생해 구휼을 이루다보니 곳곳에 그를 기리는 선정비가 중복되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목민관 비석 중 가장 많은 수의 비석이 남아 있는 인물은 순조 때의 윤구동 목사이다. 1815년 5월에 부임하여 1817년 10월에 이임한 그의 선정비는 제주 전역에 총 13기가 남겨져 있어 전체 목민관 비석의 8.8%를 차지한다.

가장 오래된 비석은 화북비석거리에 있는 심연 목사의 비로 추정된다. 심연은 인조 때의 제주목사로 재임기간은 1638년(인조 16) 6월부터 1640년 9월까지이다. 현재의 비면은 상당량 마모되어 후면 또는 좌우측면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를 건립연대를 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그가 떠난 후 건립되었다고 가정하면 1641년경에 해당된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374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목민관 고비 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면에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목민관비는 대정향교에 있는 권극중 현감비이다. 전면에 '현감권공극중존성권학비'라고 되어 있고, 후면에 '강희 원년 임인 칠월이십삼일 립'이라고 건립연대가 새겨 있다. 1662년(현종 3) 7월 23일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 중엽, 지금으로부터 353년 전에 건립되어 현재 건립연대가 확인되는 목민관 고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전역의 목민관 비석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대다수가 19세기에 건립되었다. 18세기 이전의 목민관 비석이 극소수 남아있는 것은 숙종, 영조, 정조 때 강력한 금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698년(숙종 24) 외방에 생사(生祠) 건립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진(10월 6일) 이후, 18세기 들어 지방에서 수령의 선정비나 생사당 건립 금지 명령이 계속해서 내려진다. 특히 1725년(영조 1) 수령의 비석이나 생사당 건립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1739년(영조 15)에는 강력한 금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최소한 정조 이전까지 세워졌던 선정비는 대부분 철거된 상태로 판단된다.

소재지 별로는 148기의 목민관 비석(군)이 총 38장소에 분포되어 있다. 가장 많은 곳은 화북비석거리(12기)이며 제주목관아, 제주향교, 자연사박물관의 비석(군)이 각각 11기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목민관 비석(군)의 비제 호칭은 총 44종으로 불리고 있었다. 가장 많은 호칭이 '휼민선정비'로 22기가 있다.

조선시대는 삼강오륜에 입각한 유교적 풍속 교화를 위해 충신·효자·열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권장했다. 문헌에 실린 제주의 효자, 열녀, 충의(사)는 총 84명의 사례가 파악되지만 정려비(충·효·열비)는 총 71기(77명)로 조사되고 있다. 71기의 지역별 소재는 제주시 50기(52명), 서귀포시 21기(27명)이다. 특히 제주시 북서부 지역인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지역 소재 충효열비가 총 33기(34명)이어서 제주 전역의 충효열 정려비 중 절반에 해당한다. 서귀포시 지역은 충효·충의비가 다수 소재하며, 특히 성산읍과 대정읍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 전하는 최초의 사례는 고려 후기 원간섭기 목호 석곡리 보개(石谷里甫介)의 아내인 열녀 정씨(鄭氏)이다. 1374년(공민왕 23) 목호의 난 때 최영(崔瑩) 장군이 이끌던 고려군사에 남편이 죽자 그를 따라 자결하여 그 정절을 높이 사 정려한 것이었다. 현재 남원읍 한남리 마을회관에 정씨를 추모하는 비가 있다. 후면에 1834년(순조 34) 한응호(韓應浩) 목사가 비석을 다시 세웠다고 새겨 있어서, 그 이전부터 비석은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의 영상은 한라일보 유튜브 채널(촬영·편집 박세인 기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축 CONGRATULATIONS
임 용
문화예술진흥원장

부 재 호
문화예술진흥원장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회 장 현 영 순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임 용
문화예술진흥원장

부 재 호
문화예술진흥원장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평대초등학교 28회 동창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이 영 구
(벽진이씨 34세손)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벽진이씨 선전공파 함덕지파

축 CONGRATULATIONS
합 격
2020년 건축사

양 동 욱
(부 : 양행철 · 모 : 강춘선 · 배우자 : 김민희)
2020년 건축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조카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곽지 장필용·윤이의